

동대신문
자랑공로사명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뜻을
이룹니다**

대학은 열린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열린공간 속에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존할 수 있으며, 상아탑의 진리는 여러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을 때 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된 중구 예술제, 녹두거리 문화제는 그 시도는 좋았으나 일회적인 행사로 그쳐 지역대학으로 자리잡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대학이 건강한 사회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행사에는 탈피해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대학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본사에서는 지역의 소외된 이들을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들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고 작은 결실을 일러가고 있다.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복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긍정적인 도움만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생각은 이미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기성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학생이다.

이 사회를 짊어 나갈 대학생들의 패기와 정열이 어우러져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 전개 된다면 지역사회의 복지실현은 한층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에 의한 봉사활동은 아직도 미비하다. 돕는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근시안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 사고 등에 의해 선뜻 나서지 않는 현실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에 대한 편견을 의식 회복과 더불어 자원봉사 경력의 사회적 인정제,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교육시간 할애와 성적반영제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활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봉사자의 양성 및 전담 봉사기구의 설치를 통해 돕는다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구체화 현실화 시켜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때 '더불어 사는 삶'이란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관련기사 4면)

제28대 총학 유병문·황인구조 당선

경주 13대엔 장재봉·김석중조

‘역사창조’와 ‘인간존엄’을 기치로 내건 유병문·황인구조가 제28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당선됐다.

결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지난 23일 학생회관 1층로비에서 진행된 개표결과 총유권자 8천9백44명중 5천33명(59.27%)투표해 △유병문·황인구조=2천7백37표(54.36%) △박동민·박장민=2천1백67표(42.98%) △무효=134표 △오차=2표로 집계돼 5백73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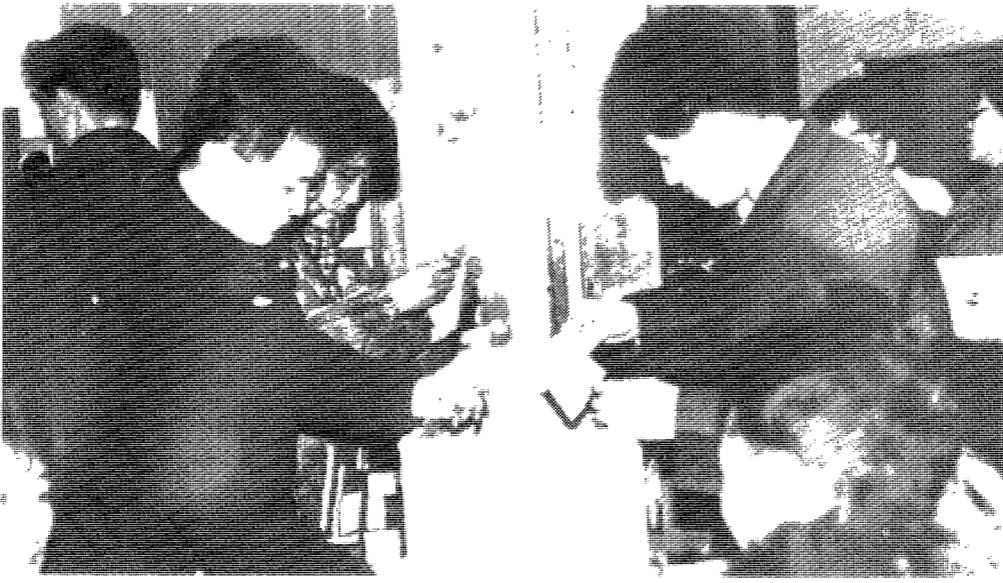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1지역(불대, 예술대)=287:47 △2지역(문과대, 이과대)=44:469 △3지역(사과대, 경상대, 법대)=513:406 △4지역(생자대)=146:151 △5지역(사범대)=386:209 △6지역(공과대)=433:662 △7지역(야간 강좌)=522:220(이상 유병문·황인구조, 박동민·박장민조)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4지역(생자대)이 총유권자 4백25명중 3백55명(71.76%)이 투표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3지역(사과대, 경상대, 법대)은 1천9백74명중 9백48명(48.02%)이 투표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지난 22일(야간·부재자투표)과 23일에 치러진 제13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지난 22일(야간·부재자투표)23일 치러져 총 투표율 69%(4학년 제외)중 기호 3번 정재봉(사복:3)·김석중(산안공:3)조가 당선되었다.

장재봉·김석중은 4개의 후보중 총 6천8백24명의 유권자가운데 3천6백46명의 투표를 통해 총1천2백55표(34.4%)를 얻었다.

선거개표는 지난 23일 오후6시부터 원효관 소강당 II에서 실시되었다.



△제28대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정·부회장이 지난 22일 선출됐다. 사진은 당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개표 모습.

오낙원 이사 18대 이사장 연임

제18대 이사장에 오낙원 전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번 이사장 선출은 지난 24일 타워호텔 중극관에서 열린 제1백35회 이사회에서 열두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법인사무처(처장=송재호·국민윤리)측은 “현재 진행중인 개교 1백주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학교를 위해 노력한 점들을 감안해 전 이사회를 연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수동정

- ▲목재보(불교학)=중국불교성지 순례단 인솔 및 학술발표차 지난26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중국방문.
- ▲이순룡(경영학과)=지난 24일 제지회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영 영인’이란 논문으로 논문상 수상.

전과제도 전학과 확대 실시

다양한 분야 이수... 진로 선택 도움

본교에서 시행되는 전과제도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학과간의 장벽을 낮추어 적성에 맞는 학과로 변경해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다양하게 이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는 전과제도 는 그 취지에 맞게 종전 일부 이·공계학과에서만 이루어지던것에서 전 학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제도에 따르면 사범계열, 한의예, 의예, 불교이동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경원의 10%이내를 선발하게 되며 타계열 전과는 가능하나 캠퍼스간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2학년 진급예정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교육부의 최종허가가 나지 않은상태지만 다음 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학기가 시작되기전에 미리 희망학생들이 준비해 학기중 실시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미리 공지해 두는 것”이라 밝혔다.

보 혹은 등록금고지서 전과안내서 등 동봉할 예정이다.
년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성적정보

지난 23일 승석구총장(철학)을 비롯한 학교위원들과 서울·경주·조원위원들은 본교교무위원회의실에서 △경비기능직 근무제도개선 △사무기능직전환에 대해 95단체협약 보충협약서를 체결했다.

체결된 보충협약에 따르면 경비기능직근무제도는 1일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휴식30분 포함), 일요일은 격주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무기능직전환에 대해서도 만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시행기간내 근속 10년 미만자는 99년도에 기회를 부여하여 2천년도에 2차기회를 부여하기로 협약했다.

전환직급은 일반직9급을 갑을(甲乙)로 분리운영키로 했다. 9급 갑은 현재 9급직원, 대졸신규임용자, 9급을은 사무기능직전환자의 직급으로 하기로 했다.

보충협약서에서는 전환시기를 매년 9월1일로부터, 전환대상 첫째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연속 다음해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전환자의 평가기준은 근속년수, 시험, 학력, 인사위원회평가, 심사위원회의 평가, 근무성적평가 등 6가지요소를 합산한 총점순위에별로 정년내에서 선발키로 했다.

보리수

적멸, 그 즐거움

어느 큰스님이 입적했을 때이다. 평소스님을 존경하던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 영결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이때 거사한분이 조사를 다음과 같이 했다. “스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영결식장 분위기는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갈 죽었다는 의미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말에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말이란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만약 일반 속인의 영결에서 ‘얼마나 좋으십니까’하고 조사를 했다면 그사람은 유가족들에게 불매를 맞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예부터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명분지화를 당한 사람이 많다. 입은 혀근의 문이라고 했다. 특히 죽은 사람앞에서 좋다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그러나 그 거사의 좋으라는 표현은 다음 구절에서부터 더욱 슬픈 조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스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스님의 해탈이요 법신의 탄생이며 경성이요 마지막 도달하는 적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적멸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멸의 세계에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적멸은 수행인이 오도적 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최고의 이상이

며 즐거우라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선사들은 죽음을 입체적으로 자재(自在)한 것이 많았다. 은봉화상은 좌탈입망한 선사들이 많았다는 말을 듣고 불구나무를 서서 그대로 입적했다. 좌탈입망하기도 어려운데 도화(倒化)한 것이다. 또 경동선사는 다른 수행자와 달리 입종이 가까와오자 때를 알고 들가운데 나무를 많이 쌓아 놓고는 신도들 집에가서 어디 좀 다녀오셨다 하진하고 제손으로 불을 놓아 불속에 서서 자화장으로 일생을 마쳤다. 또 보조스님은 여러차례 입종의 초창을 거절하다가 끝내 거절할 수 없어 길을 나서다가 가시는 가지만 가는데 좀 다녀오셨다 하진하고 제손 나무기지를 잡고 선택로 입적하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그러나 조주선사는 어느 스님이 열반하자 장례행렬을 보고 수많은 죽은 사람이 단 하나의 산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한 일이 있다. 우리주위에 사람들은 아직도 적멸위락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명리와 탐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탐욕에서 자유스러워 질수 있다.

김정호
불교신론사 사장

◆제33회 학습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업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안전수확을 거둔 본사 학생들이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습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풍곡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분야
인문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공모요령
개별이 오무 2백자이상 6백 내외의 학술논문
○공모자격:서울 및 광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여 위장직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1995년 11월1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1996년 1월1일차 본지 지상
후기바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260-3491-2

◆제10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 동국의 문화적 정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10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요청분야
시 부문:3편 내외 소설부문: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공모자격:서울 및 광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1995년 11월1일~30일까지
○심사
시 부문: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여 위장직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1996년 1월1일차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동대신문사

우리가 내미는 손길은 아직도 부끄러움 뿐입니다

눈발이 흠날리는 날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견뎌 내야만 하는 우리 이웃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마음뿐이지만 자그마한 정성을 베풀수 있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본사가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을 일구기 위해 그동안 펼친 지역사회 자원봉사 캠페인은 동국인과 중구지역 이웃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과 훈훈한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지원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과 진정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통해 밝고 따뜻한 세상이 일궈지길 바랍니다.

중구지역 불우이웃 후원을 위한 냇지 관매와 1인 1구와 갖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대신문사

열린 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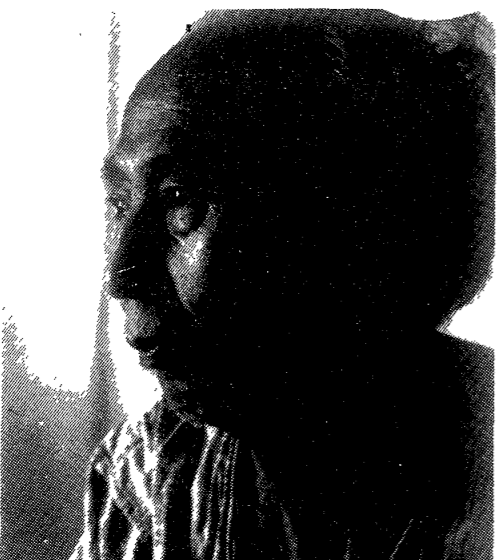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DU 10번게시판이나 ID:dgpress@naver.com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차기학생회, 올해 평가속 성과 안아야

"요즘 기분이 어때요?" 96년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제 13대 총학생회 선거기간 동안 내내 나를 만나는 이들은 모두 그렇게 물었다.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나는 "답답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95년 학생회 활동속에서 온몸으로 겪은 사건들을 떠올리면 아쉬움과 시원함이 번갈아 목구멍까지 치밀지만 간명하게 답답함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란 노래 가사처럼 처음 내딛는 걸음부터 슬하게 울부짖어 채웠었다. 민주적인 총장 올림과 경주 부총장 직선투쟁의 실패 이후, 예대대학부부터 벗어난 총학내 두 정파간의 정치적 견해와 활동차이를 대립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던 건실함을 위한 투쟁속에서 12일간의 단식과 점거농성, 대동제와 한총련 출범식, 한·통과 한·자 사태를 비롯한 정치투쟁 그리고 2학기의 학부제에 관련된 장기간의 점거농성투쟁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95년은 점점 희미해지는 학생대중에 대한 학생회의 통괄력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그 구체적인

실현태를 찾기 위한 모색의 시간이었다.
이제 '12대 총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숙제와 일들은 어느새 11월 23일 선출된 '13대 총학'과 1만학우의 몫이 되었다. 제13대 총학생회가 올해의 실패와 성과를 철저한 비판으로 평가하고, 그 밑거름으로 더 나은 온방울을 펼쳐나가기로 기대한다. 벌써부터 준비되고 예견되듯이 96년엔 올해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들로 채워질 것이다. 계속되는 질서재편기 속에서 학부제 실시와 일산캠퍼스 이전 문제와 그리고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판도의 변화 등등 심층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급격한 질서재편의 흐름속에서 총학생회는 방과파 소외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과 너른시야로 정당한 방향각을 그려내야 할 것이다. 다시금 제 13대 총학생회가 멈추지 않는 대학 개혁과 시대반격으로 온방울 18년의 역사를 딛고 도약하는 참된 시적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 문 석
(인문과학대 철학과
경주캠퍼스 제12대 총학생회장)

민주화에 헌신하신 계훈제 선생님을 만나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하신 계훈제 선생님을 서울대병원 층 10호실에서 뵈다.
철순도 증반을 낚으신 연세 닳았지만 머리는 맑은데 눈이 빛나고 유난히 밝아보이니 그 눈빛은 여전하시다.
호흡기가 나빠져 입원하신 선생님은 수술결과가 좋아 내일 초겨 띄운 헌신이다. "청년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힘있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라며 미안하듯 말을 잊지 못했지만 문밖을 나서려 할 때 "이제 동대학생들이 나서서 독재자, 나쁜 대통령들을 싸워서 없애야 해"라고 말해 평생 지켜온 굳은 의기는 여전한함을 볼 수 있었다.
조 용 수
(예술대 미술학과)

면접시험 이렇게 대비하자

필요이상 답변 금물·밝고 쾌활한 인상 보여야 인물평가에 더 많은 비중 두는 경향 두드러져

12월은 글자의 30대 기업과 국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공채가 있는 달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입사시험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면접시험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최근의 면접경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면접시험은 채용의 윤곽이 어느정도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요식행위 위외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면접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면접시험이 인사담당자의 인품, 언행, 지식의 정도를 직접 면담으로 알아보는 구조시험이요 인물시험이다. 평가시험이나 서류전형으로는 수험자의 사람됨됨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면담을 통해 잠재적인 능력이나 창의력, 업무추진력, 사고력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즘은 각 기업에서는 면접을 그만큼 중요시 하고 있다. 따라서 입사의 단락을 결정짓는 변수로 작용하는 면접시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수험자의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면접시험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각 기업에 차이는 있으나 인물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위원 역시 최고경영자직 중역직으로 구성되게 상해였던 것이 최근에는 대리나 과장급등 실무진들이 최종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어떤 회사는 아예 그 기초실력을 성적증명서로 대체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면접시험에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집단토론편면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의 세가지중 기업에 따라 한두가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험자는 면접관이 자기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긴장을 풀면서 면접관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눈의 초점을 잃고 산만해지면 정서불안, 자신감의 결여등은 소극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 여기서 지켜야 할 것은 필요이상 답변은 금물이다. 이는 대로 자신있게 대답하여 당당함을 보여줘야 한다. 수험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보여주는 안면미 신경질, 무리한 배경, 이질, 무관심등의 표현이

나 태도등도 금물이다. 처분함과 명석한 판단, 건전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정제, 밝고 쾌활한 인상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수험자는 다음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름알아 서서 몇번이고 연습해 보기 바란다.
△자기소개는 간단한 자기 PR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상 생활=휴일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당신의 인생관을 말해봅시다. △학교생활 교육관계=졸업한 후의 주재 및 내용은 무엇입니까.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평가해 보십시오. △직업관=학생과 사회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타입의 상사와 일하고 싶습니까. △스마트폰기=우리가 직업을 지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회사에도 응시했습니까.
황 우 열
(학생처 취업과장)

다향관 식당 반찬 자율배식 실시

불필요한 낭비줄여 확대투자 기반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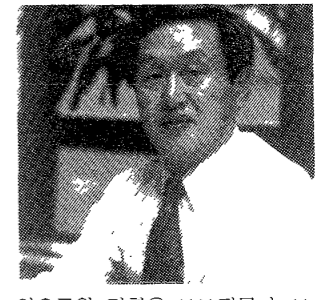
현재 동학의 구내식당은 비좁은 공간, 미비한 시설 등 낙후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올바른 먹거리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먹거리문화 역시 바뀌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허겁에서 느끼는 미각적 효과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중요시했다. 지금은 그러한 미각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환경과 식당의 분위기가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다. 이는 곧바로 식당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지만 우리 대학의 실정은 당장 식당에 대해서 투자를 하여 환경 및 시설을 개선하기에 아직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업공동체위원회(이하 공관위)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투자의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식당운영을 개

선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여러 형태의 고민 속에서 동학의 학우들이 식당에 대해 느끼는 여러가지 불만 중에서 식사의 질에 대한 불만, 특히 반찬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관위는 반찬을 추가로 제공하는 자율배식을 우선적으로 다향관 학생식당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율배식은 평가 결과가 좋다면, 동국관 학생식당에서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고민이 있다. 1991년 다향관 학생식당에서 감자를 자율배식한 적이 있었다. 3개월 동안 실시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적이 있다. 이는 자율배식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양적 먹을 수 있게 자율배식을 실시했음에도 버려지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반찬으로 버려지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현재 다향관 학생식당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율배식에 드는 추가 비용은 하루 평균 10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적어도 1년이면 약 2천 만 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학의 학우들이 자율배식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는 곧바로 학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른 형태로 확대 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반을 우리 모두가 새로운 먹거리문화의 정형을 창출할 때이다. 스스로가 새로운 요구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싹들 때 새로운 모범은 창출될 것이다.
김 용 문
(공관위생활준비실무위원)

동/문/칼/럼

자기 이름에 상표를 달자



소위 KS 마크라면 우리사회에서 행세하는 풍토가 있었다. 직장도 회사도 모두가 잘 나갔다. 그래서 입시철마다 촛불 켜 놓고 불공을 들이거나 교회에서 새벽기도하는 모습(母心)을 매스컴을 통해 연례적으로 봐 오고 있다. 마치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하면 세상만사 OK의 열차에 예약 승차한다는 기분을 갖고 말이다. KS라고 다 출세하고 미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절대 아닌데...
5년이 있으면 1년이 뛰면서 10년이 바뀌며 1백년이 넘어가고 1천년의 숫자가 거대하게 수레바퀴를 굴리는데, 과연 이 21세기에 옛것을 답습하는 집단 상표권이 유효할까, 그 지방 사람이라고 그 학교 나왔다고 그 카테고리가 그냥 무임승차하듯 유지가 될까, 그런 것은 서양인을 삼안고비(深眼高鼻)의 양(洋夷)이라고 배척하던 대원군의 폐쇄적인 비역사상만 상시시킬 뿐이다. 그때는 세계가 인종, 연령, 문화를 초월하여 자기 개인 대 세계라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시장개방 질서반대 같은 것은 머나먼 옛 전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한국 최초, 아시아 최초 갖는 함을 쓸 수가 없고 그방면의 세계 최초가 되어야 인정을 받을 것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아인슈타인, 힐러리, 에디슨, 빌 게이츠, 스티브 버그, 폴 고갱, 이순신, 슈바이처, 서정주... 그 숭한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빛냈지, 미국사람이기에, 귀족출신이기엔, 동국대학교 나와서 그 덕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창 식
(MBC예술단 사무이사·사66층)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해빙·전태일등 관심부음

총학생회의 결선투표를 알리는 우울한 헤드라인 기사를 선두로 한 지나호 동대신문(제1189호)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민노총, 총학생회선거선투표, 생활협동조합, 전태일기사등으로 한눈에 소재를 간추릴 수 있을만큼 소재가 극한적이었다 보인다. 3면의 논설은 이반반도의중간을 함호 앞두 고도 편집상의 변화를 추구한 점에 박수를 보내며, 자원봉사감독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등의 기사를 볼수록 그 열의를 짐작할 수 있어 좋았던 지나호였다. 5면은 한학기를 마감하면서 학생들의 생활협동조합 창립준비 위원상황이나 복지사업등의 현황

을 짚어줌으로써 신문사의 겨울 준비를 알뜰히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언론인 안동일의 해빙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영화에 대한 기사는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흥미로운 기사였다고 생각된다.
아쉬웠던 점은, 3면의 동국만평과 8면의 만화가 실리지 않았던 점인데 필자들은 좀더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한편 지난 제1188호 이석규(범)군의 글에서, '군인 민간정부는' '군인 민간정부', '스타일로는' '스타일도로', '총정'은 '총성'으로 바로 잡아야 하겠다.
윤 영 미
(자연대 기교과·본사모니터)

목격골

- 민중사랑 '민중의 나라'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언론문화연구회 일동
- DUBS 35th형들의 막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DUBS 36th 일동
- 12월3일 응생과 95년이 생일이예요. 진이야 생일 축하해!! - 사랑하는 동기
- 물리학과 4학년 양선아~! 취직과 '95를 축하해... 11월28일.
- 학복위 팀:생일 대환 축하-졸업 축하(7년만에...) 사무국장:생일대행 축하. 정진이언니 그만 좀 괴롭혀요. 내년사무장:생일대행 축하. 현기선배들 바주세요. 생활문화팀:입대 축하. 첫후가 나와서 꼭 1996년 귀향사임해야 돼! 편집장:술로발출발자들. 편집장:인상 좋 퍼!! 편집장:활활활.
- Fr. 학복위의 회임교사국장
- 27일 월요일은 1년동안 수고한 부총회장(박유진)님 생일입니다. 모두모두 축하해주시다. - 사범대 대수부
- 4학년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선배님들과 많은 자리에서 뵈었으면 합니다. - 교육학과 들
- 수고하셨습니다
- 제28대 자주적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신 많은 일꾼들 감사합니다. - 유병문·황인구 드림

동/악/광/장

- 수고하셨습니다.
- D·K·B·S 업정렬 8기 방송장님! 지난 1년간 방송장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물선생님, 한해 동안 애쓰셨어요. - 가을여인
- Hw J 회원들 시험 잘 보시고 윤활, 삼국전배 연락 좀 해요. - Hw FM. 6기
- 고미사 슈퍼게임을 기말시험 후 할테니 한평도 빠짐없이 꼭 나오세요. - 만수
- 불교학과 학우님(범우)잘 사세요! 방학 끝나고 봅시다. - 불교학과 1학년
- 자주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신 통일세대 일꾼 여러분 모두모두 사랑해요. - 통일동아 예쁜이
- 명! 보령, 추무리, 아가리, 배재, 오세아저씨, 배실이, 배배용, 석장이 이들 모두 기말시험 잘치고 방학동안 잘지내자. - FM. 6기일도
- 제8회 백상배 불림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리아 불림장 영연부 관계자 분들과 상주클럽 회원분들과 우리 동아리 총무, 선배님들 후배님들 하여간 고맙습니다. - 동국불림 회장 이원구 94경계
- 알립니다.
- 지난 23기 적십자자들은 새로운 회장님과 임원단을 맞이했습니다. 문화대 회장님과 임원단 여러분 화이팅!! - RCY총하니가

온방골

- 수고하셨습니다.
- D·K·B·S 업정렬 8기 방송장님! 지난 1년간 방송장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물선생님, 한해 동안 애쓰셨어요. - 가을여인
- Hw J 회원들 시험 잘 보시고 윤활, 삼국전배 연락 좀 해요. - Hw FM. 6기
- 고미사 슈퍼게임을 기말시험 후 할테니 한평도 빠짐없이 꼭 나오세요. - 만수
- 불교학과 학우님(범우)잘 사세요! 방학 끝나고 봅시다. - 불교학과 1학년
- 자주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신 통일세대 일꾼 여러분 모두모두 사랑해요. - 통일동아 예쁜이
- 명! 보령, 추무리, 아가리, 배재, 오세아저씨, 배실이, 배배용, 석장이 이들 모두 기말시험 잘치고 방학동안 잘지내자. - FM. 6기일도
- 제8회 백상배 불림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리아 불림장 영연부 관계자 분들과 상주클럽 회원분들과 우리 동아리 총무, 선배님들 후배님들 하여간 고맙습니다. - 동국불림 회장 이원구 94경계
- 알립니다.
- 지난 23기 적십자자들은 새로운 회장님과 임원단을 맞이했습니다. 문화대 회장님과 임원단 여러분 화이팅!! - RCY총하니가

(구내식당 식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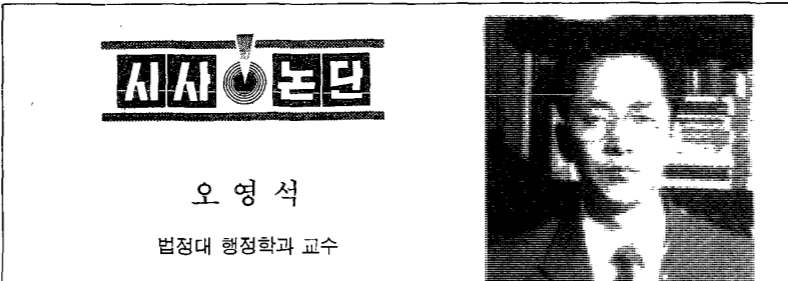
다향관 식당	
27(월) 소고기 반찬(1000)	모듬의 김(1000)
28(화) 닭고기(500)	명절음식(1000)
28(화) 김치만두(900)	반찬(1500)
30(목) 어묵볶음(900)	사골곰국(1000)
12(1월) 튀김달걀(1000)	짜장(1000)
2(토) 떡볶이(900)	숙제비빔밥(900)
동국관 학생식당	
27(월) 닭강정(700)	황수육(1000)
28(화) 닭강정(1000)	명절음식(900)
28(수) 부추정국(900)	불고기(1000)
30(목) 꼬치오징어(1000)	당장볶음(900)
12(1월) 연두부(900)	해물정국(1200)
교직원식당	
27(월) 순두부찌개(2200)	쇠고기비빔밥(2700)
28(화) 대구매운탕(2500)	동학비빔밥(2200)
28(수) 해물국(2200)	오징어(2200)
30(목) 꼬치오징어(2500)	간짜장(2200)
12(1월) 들깨시리국(2200)	추경(3000)

'5·18특별법'제정의 의미

국민의 성과물... 특정 정당 아닌 민중전체 시각에서 제정해야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24일)갑작스럽게 민자당에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 이번 조치는 예곡된 역사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가히 문민정부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이번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다는 국민이 이룩한 또 한번의 승리이다. 1980년 이후 결성된 5월 관련 단체들이 전개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들, 그리고 법정투쟁은 그야말로 민주투쟁의 연속 바로 그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6천5백여명에 이르는 '서명교수'들의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 우리 역사상 초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검찰청 앞 가두시위,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 및 관련자 처벌 요구, 각종 시민단체와 재야단체들의 법정투쟁 및 헌법소원, 수업을 뒷전에 두면서까지 보여준 각 대학 학생들의 열렬한 학내의 투쟁, 일반 국민들의 성원 또한 엄청난 힘을 모아 주었다. 이러한 국민 모두의 민주화 역량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성과물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 선언이라 할 수 있다. '80년 이후의 민주사에서 1987년 6·29선언을 이끌어 낸 것이 국민의 첫번째 승리라면 이번 특별법 제정은 또 한번의 승리라 하는 것이다.

금번 특별법 제정 선언은 '87년의 6·29선언과 유사점이 많다. 첫째, 두 선언 모두 형식에 있어 최고 권력자(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의 결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두 선언 모두 최고권력자의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행위는 아니다. 6·29선언이 5공의 연속선상에서 노태우씨가 차기대권을 잡기 위해 인위적으로 단행한 것이라면 이번 특별법 선언도 김영삼 정권이



지난 6월의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계개편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내놓은 정치적 카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두 선언 모두 우리나라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5·18 특별법'제정은 6·29선언과 집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번 선언이 어찌면 민주정기와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도 역사와 국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 누가 이 일을 해 낼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5·18 특별법'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특별법은 한 정당의 시각이 아닌 민중 전체의 시각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정부업무인 아닌 민자당 단독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할 뜻을 밝혔다. 이는 누가 보아도 현 집권당이 내린 총선을 의식해 정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특별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당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면 결별할

넷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주지하시라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5·18특별법 제정 요구의 외중에서 불거져 나왔다. 대다수 국민들은 비자금 사건으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였다. 이번에는 역으로 특별법 제정 문제로 비자금 문제가 묻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대한 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각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5·18특별법'제정 발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역사의 역곡을 바로잡고자하는 노력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특별법의 내용 공정한 수사와 전모의 공개, 관계자의 철저한 단죄,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의 배제 등 우리 국민이 요구해야 하고 감시해야 할 일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가 시작한 것이다. 야당, 시민단체, 재야단체, 학생, 그리고 시민 개개인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여겨 보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참여해야 한다. 세익스피어의 '헐릿'에 나오는 다음의 글귀를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참여해야 한다.

"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의심하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을 의심하라. 그러나 내가 조국과 겨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

역사의 만동이 맑은 기슭과 함께 다시금 차 오를 때 우리는 광주 망월동 영혼들에게 조의를 표하거나 값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설

종강, 그 새로운 시작

얼마전 날렸던 눈발은 이제 종강이 머지 않았음을 실감케 했다. 학생회선거도 모두 끝나고 기말고사만 남아있다. 어느덧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평가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지난주 전격발표된 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방침은 진작 이뤄져야 했던 것이지만 그간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등에 잇달은 온 국민적 투쟁의 성과물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연의 감축소자 아닌 올바른 역사적 해결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올해 초 송석구총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진행한 사업에 따른 학교발전 의지는 평가할만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천년에 개원하겠다는 불교병원과 98년부터 이전 예정이던 제3캠퍼스의 진행성과가 중요하다. 이제는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물이 나와야 할까 싶다. 빠른 내년부터 실시된 등록금 차등제와 예고에서 시작된 학교당국과 학생회와의 극단적인 불신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학부제 실시논란은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제도 개편뿐 아니라 재반여건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학교운영이 효율화된다는 학부제는 교육 여건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최대한 장점이 살려져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라간 듯한 비난을 면키위해선 제도적·물질적 보완마련이 이번 방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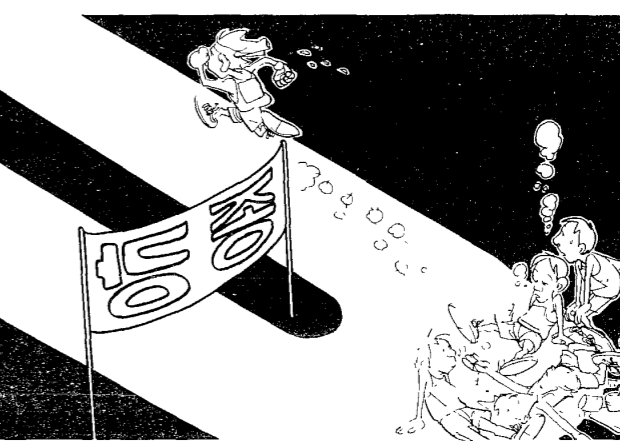
내년 동국90주년을 맞는 의미는 자못 크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개교 90주년기념사업 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으로 연기된 대학총합평가인정제 준비 또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내실있게 대비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발전사업들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그러하기에 재단의 역할이 주목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새로 이사개편이 있을 후 처음 이사회가 열렸고 오 녹원이사장이 재선을 되었다. 유일민 이사에 대해 사회적 물의와 학생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점을 새삼 시비하고 싶지 않다. 더이상 재단의 기여가 열악하다는 지적을 거부한다면 지금의 시작하는 마당에 새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불확정성에도 마련도 시급하지만 학교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재단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회선거가 모두 마무리 되었다. 냉철한 평가와 효율적인 이월 속에서 내년 학생회체제를 잡아나갈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학생대중과 함께 하려했던 간부들의 헌신성은 인정되나, 많이 경직된 모습과 임직되지 못한 모습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방중의 고민과 논의속에서 조금씩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동국에 대한 열정으로 이 겨울을 맞이하자.

중국안정



종강은 종착점이 아닌 변함점입니다

각대학의 선거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 학생회 선거는 한해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또한 정책생산의 장이기도 하다.

◇ 각대학 학생회 선거 평가와 전망

5.18·비자금사건·민주노총등 사회정치사안 쟁점화 학생대중 자주성에 기초한 이해와 지향 실현해야

각 대학 선거 분위기 이번 각대학에서 실시한 선거의 분위기와 경향을 살펴 보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학부제로 인해 학생회 체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5·18특별법 제정투쟁이나 노태우 비자금사건, 민주노총총등 사회정치사안이 주요쟁점화되고 있다.

본교를 비롯 한양대, 국민대 등 몇몇 대학이 생활협동조합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복지공약이 예전보다는 많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각 대학 당과대는 대부분 단선으로 진행됐는데 그 이유로 후보자부재를 들 수 있다. 정책선거를 추구하고자 일부에서 실시했던 '기호없는 선거'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각후보자간 명확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도 제기될 수 있다.

하이텔 컴퓨터통신에 띄워진 선거결과를 보면 '자주적 학생회'가 대거 당선되었는데 '독표차도 1천표가량으로 대부분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선거분위기 전체로 투표율은 그리 높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소외된 나라를 위하여', '열린총학', '학생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등의 구호에서도 볼 수 있듯 기존 학생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생회 위상차도 심각하게 거론되었고 그와 더불어 학생회 지지권강화, 대중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바라는 요구 또한 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위 좌파계열의 핵심구호는 비슷한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 '전북하라 주류질서', '주류질서의 전복자', '새로운 반란', '시대반란' 등 기존 한총련 중심의 주류질서에 대한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을 준다.

본교 학생회 선거 평가 본교의 이번 학생회선거를 평가한다면 준비비율과 일관성의 결여로 매끄러운 진행을 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점과 과학생회부터 단체까지 후보자부재의 심각성, 썰렁한 유세장과 공청회 자리에서 보여지듯 선거분위기의 점체를 들 수 있다. 올바로 서지 못했던 총대의원회 중앙위속에서 중선위를 꾸리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경해도 있다. 과열선거운동으로 인해, 조직선거가 우려되고도 했으나 공동정책자료집을 꼼꼼히 비교검토하고 유세를 경청하는등 자주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앞으로 학생회 전망 총학생회부활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로 거듭나야 한다. 학생들의 자주성에 기초한 이해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투표·부정투표등으로 문제가 된 학교도 있었고 중선위의 불공정한 운영에 후보자가 사퇴한 곳도 있었다. 이제는 기성정치관과 같은 불신을 없애고 깨끗한 학생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회란 매년 단행되는 것이 아닌 연속성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신계가 요구되며 지금시기에 선거를 올바른 평가하고 내년을 힘차게 준비해야 한다. (사회부)

Listening Comprehension이 약하신분
특히 주목하십시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오랜기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TOEIC 교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Heinemann출판사와
Language Testing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만들었습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021296-8000 ● 팩스 021296-6179, 292-8805

TOEIC TESTER, 이렇게 다릅니다.

- Language Testing 분야 최고의 전문기와 평가전문 기관의 공동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 Listening 능력 향상을 위해 각 문항의 문장마다 주요 부분의 발음현상을 설명했습니다.
- 전문 해석 및 풍부한 해설로 각 문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절찬판매중

- 고득점을 위한 TOEIC 전략.
- 풍부한 어휘와 출제 빈도 높은 상황별 표현.
- Listening 능력 향상을 위한 비밀까지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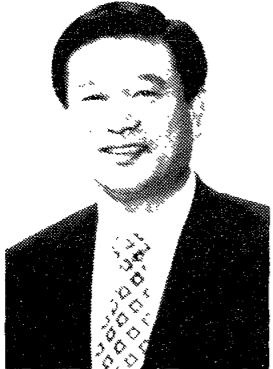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5회 끝>

이번호를 끝으로 본사 기획시리즈 자원봉사 캠페인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을 마무리짓는다. 지금까지 성원을 보내준 중구지역 관공서, 구내기관, 자원봉사자로 나선 학내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호에서는 중구청장과 인터뷰 및 마지막 5회까지 진행된 자원봉사 캠페인을 돌아보는 총론을 실는다. (편집자)

인터뷰

자원봉사, 지역사회 발전 큰힘
상호협조속에 지속적 발전기대



김동일
(중구청장)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불우이웃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의 불우이웃의 현황을 보면 먼저 거택보호자(1층)와 자활보호자(2층)로 구분하며 거택보호자가 385가구 441명, 자활보호자 341가구 612명이며 무의무탁 노인이 230명, 모자세대 117세대, 부자세대 7세대, 소년소녀가장이 10세대입니다.

지역자치체가 실시됨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제도 보완은 어떻게 모색중이신지요.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다각적으로 복지행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을 하루종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 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노년화 시대가 앞으로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노인정 확충, 노인여가활동 등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복지형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살기좋은 중구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학이란 여러분들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활동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과, 그 자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것이 그저 남을 돕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함께 나누는 생각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있어야만 보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수행을 위한 중구청과 본교와의 상호연대 및 협조사항으로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 귀교와 우리구청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 계속하기 위해 많은 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어려운 일이든 지 협조사항이 있으면 서로 내방하여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하며 언제든지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번 본교에서 펼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와 당부 말씀은?

- 사회변화의 물결이 더 높을수록 학문을 익히고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를 통해 자기자신을 개발하고 나의 조그마한 노력이 불우한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여러분의 화이팅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용 기자)

구청과 학교가 하나되어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 캠페인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 봉사 아직 갈길 멀다

학내구성원 하나된 실천통해 지역대학으로 거듭날 때
인적·물적 지원체계 보완으로 지속적 활동 기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 주위에 아직도 많은 소외된 이웃이 거닐고 있다. 캠페인이 거교적 행사로 활성화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지만 지역대학으로 가기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여전히 우리 몫으로 남아 있다.

등약로

마지막 추위

출다. 각 방송사와 신문에 의하면 10년만에 다시 돌아온 추위라고 한다. 또 한달 일찍 찾아온 추위라고도 한다.
'혹독'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추위를 달래려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더욱 단단히 옷깃을 여민다.
노교수님들의 두터운 외투는 강의실 안에서도 벗겨질 줄 모르고 이내 교수님은 "추위나 수업 그만 끝냅시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끈장 따뜻한 커피숍으로 당구장으로 아니면 난로가 있는 단체 학생회실로 모여든다.
동국관에서 수업을 마친 한 학생은 "날씨는 추운데 친구들끼리 갈 곳은 없고 그러니 커피숍이나 당구장밖에 나가있어요"라고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말한다.
학생회관에서 화벽조절이 되지않는 난로를 앞에 두고 한 학생은 "그나마 있는게 왜 이 모양이야"라며 투덜댄다. (박대용 기자)

198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회는 '복지시대'를 맞고 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입법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회성원들의 복지요구가 더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분출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시대'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사회보장의 5대제'라고 하는 국민연금(노령), 의료보험(질병), 산재보험(재해) 등은 비록 늦긴했지만 시행중에 있고 고용보험(실업)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가족수당제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사회보장체계의 뼈대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복지후진국'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경상 GNP가 세계 15위 수준이고 대외 교역량도 1천6백억달러를 웃도는 세계 13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 시 지원활동의 조달이나 자원봉사단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반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다.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점은 자원봉사자들의 교양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대개 처음인 자원봉사자들이 단순히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만 앞설 뿐 막상 그들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과 봉사계획에 있어 특 넓은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들론 상위목표인 사회적 공동의 달성성도 커가 먼 것이 현실이며 예방적 복지정책의 발전, 제도화, 사회보장체계의 일원화등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적 측면 외에도 국민소득 하위국가인 스리랑카의 정부예산지출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이 16.47%인 것에 비해 9.6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복지예산도 큰 문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캠페인은 첫 시도였다는 점만으로도 큰 성과로 남으리라 생각한다. 서울캠퍼스의 역사교육과, 중앙중문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를 비롯 경주캠퍼스의 사회복지학과 의예과 등 3백여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의 활동으로 인해 기존 학교구성원들이 어려운 일로만 여겼던 지역사회봉사활동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지역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젊은 이들의 건전함을 지역민들에게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정부재정부담 비율이 증대되고 적용범위도 확대되리라 기대해 보지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통해 앞으로 본사 캠페인의 실효성이 거교적으로 인식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또한 현재 가능할지 모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은 생활을 지탱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도기에 놓인 우리 복지제도 안에 민간부문의 역할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통해 앞으로 본사 캠페인의 실효성이 거교적으로 인식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먼저 학교당국의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번 캠페인 준비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한달동안의 협의에도 행정·예산상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입장표명의 자세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흔히 민간부문의 봉사를 하고 하면 종교단체를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인 듯 하다.

이러한 성과를 비롯해 부산대, 경상대 등의 대학들은 봉사활동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세부방점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종교단체들은 물적, 인적 구조와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인적·물적 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학교나 학생들, 특히 대학의 참여와 봉사가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대는 2년전부터 농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고 부산대, 동의대 등은 내년 신입생들부터 32시간 이상 봉사활동만족자 복지시절, 교내동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반성으로 시작된 본사주관 '열린대학, 봉사하는 동국인'은 시작된 만큼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처럼 모든 대학들이 지역과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이때에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각성이 요구된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자원봉사단을 유지·관리해나갈 체계와 인력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캠페인 진행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격려 해준 관공서 직원들이나 고마워하던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의 모습에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한 거교적 사업으로 이번 캠페인의 성과와 한계가 되새김질될 바란다. (사회부)

물론 학교당국이나 중구청 및 관공서들과 협력체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홍보와 자원봉사단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 본사 독자적으로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사실이다.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 - 現代

"CD-ROM브로셔..., 역시 현대는 다르군요"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현대가 채용정보서비스에도 앞서갑니다.

인간중심의 어념으로 새로운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현대 -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창의력으로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위해 첨단 기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으로 탄생한 국내최초 CD-ROM브로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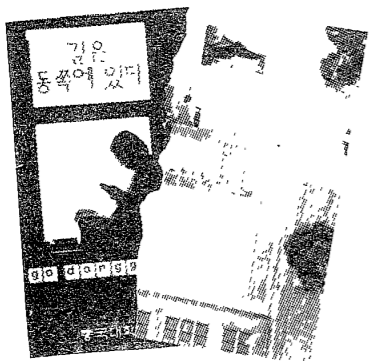
21세기를 향해 변화하는 현대의 모습에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지향하는 경영의지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업정보를 보다 빠르고 흥미있게 대학생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가 채용정보서비스에도 첨단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나 인소화 (위사 지원서1동) ■ 의대대학졸업생 채용안내 ■ 사내직 디자인공모전, 소프트웨어 강연대회등 대학생 대상 이벤트 ■ 국제화관련 과수이 인공사 채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생 채용안내 ■ 석사취직에 실심
---	---

現代

지역대 광고디자인학과 4년 1학년

◇대학간 홍보경쟁 점검
각 대학 치열한 경쟁
비용증대...실질적 투자 삭감



◇본교에서 제작한 홍보책자

최소한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한 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이 한국의 대학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10년내에 대학입시 경쟁률이 1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각 대학들에게 우수 성적의 신입생 유치 차원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1년전 고대와 연대가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 화제가 되더니 올 들어서는 경희대가 거액 투자를, TV와 라디오에 광고를 내고 대부분의 대학이 재학생들의 모교방문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몇몇 대학은 PC통신 'Hitel'에 대학정보란을 개설하고 자기소개서와 입시자료등을 담은 CD를 제작하여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하며, 캠퍼스 내에 TV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이미지 부각에 힘쓰고 있다. 또한 각 학신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교를 향해 홍보전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교 또한 홍보전략이 한창이다. 지난 25일 '이미지보존서'라는 기행이래 완성된 홍보책자는 예년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있다. 예년의 내용을 치우친 딱딱한 어투와는 달리 '우리들의 젊은 연 추경이 없다' 캠퍼스 여덟개도 내방처럼 자유롭다'와 같은 감각적인 문구와 함께 밝고 자유로운 젊은이들이 생활하는 캠퍼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등 대학의 변화에 따른 '동국의 이미지 혁신을 꾀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교육전문 케이블TV다. 방송을 올 일시간 동안 1백회의 자막광고를 낼 예정이고 홍보용 CD들도 제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도 무한 경쟁의 시대 흐름 속에 예외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대학들마다 학교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있다는 뜻이다. 그 이야기는 곧 학원투쟁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 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 대학마다 홍보 전략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제실을 깬 모습으로 비쳐져 안타깝다. (김희동 기자)

◇체육부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운동여건 향상... 새로운 전환기 도래
지속적 후원과 우수선수 확보가 관건

본교 체육부가 정상을 향한 험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80년대 본교 체육부의 활약은 본교 동문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람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두드러졌다. 야구부의 김성환, 한대화, 권투의 김광산, 레슬링의 김영남, 권역룡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체육부는 어떠한가?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얻은 성적은 그야말로 참가에 의의를 찾을 지경이다. 한 마디로 영광보다 분발이 더 요구되는 체육부였다. 이런 체육부가 과연 '언제쯤 옛날의 명성을 다시 찾을까?'라는 관심이 학우들 사이에 광범한 가운데 체육부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알아보자.

체육부는 지금 발전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학교측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올해는 학교측의 1억원 기금으로 체육부속인 금강관의 내부공사를 하여 보다 나은 훈련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향상된 여건 속에 내년엔 새로이 들어오는 선수들은 체육부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이게 한다. 야구부 9명, 축구부 12명, 농구부 8명이며 이중 대표급 선수가 7, 8명이 속해 있다. 이런 선수들은 고등학교때부터 운동기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인간적 유대감에 의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대학이 유명선수들에게 스카우트비를 지불하고 입학하게끔 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한편 선수스카우트가 무사히 끝나도 체육부가 '무사히' 발전할 수 없다면 '무사히'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선수들의 면학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체육과 관련없는 학과로 입학한다. 훈련과 경기때문에 수업에 결강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결국은 학사경고를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제적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체육부측은 선수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담당교수에게 갈강 사유서를 제출하지만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체육부측은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한 선수들이 학업취득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 때문에 제적을 당하면 결국은 학교측의 손해"며 "선수들에게 운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둘째, 체육부 조직관리의 문제이다. 체육부의 직원은 체육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갖추어야 하며, 체육부원의 효율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



◇80년대 본교 야구부는 각종 대회에서 본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언제 다시 우리는 우승의 그 함성을 들을 수 있을까? 체육부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비한 사람으로, 장기적으로 체육부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체육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교 운동선수의 스카우트가 지속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오는만큼 선수영입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체육부원과 직원이 애정을 가지며 생활하게 되고, 체육부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학생과 학교측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지만 본교 체육부가 최정상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탁동기 체육실장은 "동국체육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은 물론

이와 함께, 기(氣)집중을 통한 정신훈련에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금명간에 우수한 경기력 향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창원체육부장은 "가장 중요한 체육부 발전요소는 선수, 직원,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될때 우리들은 과거 체육부의 위상을 되찾고, 그때의 감동과 흥분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장에서 '동대 응원가'를 힘차게 부르며 열광이 끝 다시오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부)

◇명사 초청 범위 초록-고형곤 박사 '한국의 선'

교선일체...교와 선의 근본이치는 대기대용을 깨치는 것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통해 완성

옛날 중국 설화에 "여화가 하늘에 구멍이 뚫리자 차마꼭에 돌을 잔뜩 주워 모아서 하늘을 때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설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환경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태양의 복사열을 차단하는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므로써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마침내 바닷물이 육지를 덮칠 것이라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불러일으킨 화이며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서양은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봉건사회가 막을 내리고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농경문화는 공업문화로 바뀌고, 사회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대체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아시타시피 이론의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자연을 오염시키는 공해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온 나라의 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윤만을 축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

지 않기 때문에 못생림에 대해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같은 한 하늘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폐수를 흘려 보낸 사람 자신도 결국은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 주객대립의 오염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도 국민생활 속에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여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행위 자체에 민중하고 충실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정치를 하고, 표를 얻고자 인기에 영합하게 되면 전 시형정이 되고 결국 정치권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서양의 유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다빈치는 "인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제 자신으로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결핍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늘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고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공

허하고, 또 그 공허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대상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권력을 잡으려 하고, 기업가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의 의식이 공허를 느끼고 그 공허를 채워야 하는 경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나 명예 또는 돈과 같은 대상에 대해 집착을 갖는 것도 우리 중생이 가진 의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집착하기 때문에 대상만을 볼 뿐 대상을 가능케 하는 의식작용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은 잊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의식속에서 의식되어지는 의식내용을 법집(法執)이라 하고, 의식 밖에서 직관을 통해 보는 사물을 실재성이라고 합니다. 객체와 실재성을 통틀어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표상들에 집착하고, 의적생활에서도 공간적 형태를 가진 사물들의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 내는 그 행위작용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은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객체와 실재를 대상 일체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색(色)과 상(相)으로 구별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나 지각을 통하여 의식 바깥

에 존재하는 실재를 보는 것을 말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생활에서의 의식 내용으로서의 여러 가지 표상들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색은 실재하는 사물들이고 상은 내재적으로 체험되고 의식내용을 이라고 구별합니다. 결국 색도 상도 모두 대상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통틀어 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각하고 느끼고 의욕하고 행하여 가는 각각의 차별지는 그것과 상관되는 각기 고정되고 일정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꽃꽂이를 감상하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의욕으로 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차별지는 능소대립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즉 차별지는 바깥이 불만 파도가 일어 나듯이 대상의 세계를 집착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별지 이전에 순수작용으로서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평등지라고 합니다. 이 평등지는 대상의 있고 없고와는 상관없이 모든 차별지를 가능케 하는 지혜입니다. 차별지가 대상의 집착을 벗어나리게 되면 바로 평등지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평등지가 바로 대기대용(大機大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이 대상의 집착과 이집을 모두 버리면 평등지를 이루고 대기대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깨치신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래 계(敎)라든가 선(禪)이라는 구별이 없습니다. 각각의 주장에 따라 교와 선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원래는 교선일체입니다. 교와 선은 마땅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부)

뜻깊은 만필

영원한 내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윤 청 광

세상은 온통 '노래 우 비자금' 파동으로 뉘를 일으켰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한 노태우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제2, 제3, 제4의 노태우는 아직도 수백, 수천을 헤아릴 수 있을만큼 많고도 많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2, 제3의 노태우는 얼마든지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동안 BBS불교방송을 통해 '고승열전'을 집필하면서 이 나라 큰스승이었던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는데, 불교신자였다는 노태우가 큰스님들의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알아듣고 마음속에 취해버리면 결코 오늘날같은 치욕은 스스로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나라 불교계의 최고 어른을 지냈고 백양사 주지로 계셨던 만암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셨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때 임는 마지막 웃,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나 명예도, 벼슬도, 재물도 담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거야."

일찍이 의학전문학교를 다녔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부산 법원의 '한스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셨다.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이여,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이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세속의 부귀영화 그거 모두 허망한 것이야."

평생토록 오대산 산문밖을 나오지 않은 채 참선일어나 불교를 지킨 한암스님께서는 세속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셨다.

"바구니에 물을 담아 짊어지고 거둬 지갑 달려들고 가고 있는데 그 바구니에 담긴 물이 어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함문으로만 전해져 온 우리 불교경전을 한글로 옮기는 일에 평생 바친 한암스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충고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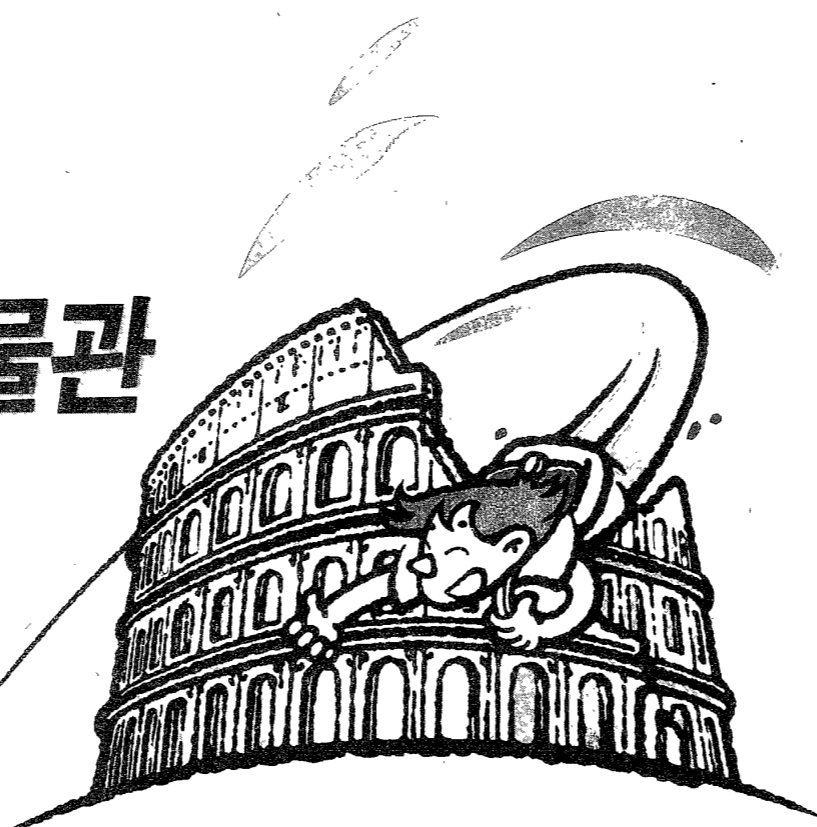
"영원한 나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법. 이 소중한 내 육신마저도 버려두고 가야하거든 무엇을 그리 탐내고 모으려고 하느뇨"

이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한 어리석은 정치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이다.

방송작가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배낭여행편-유럽 9개국

색깔있는 박물관



'내가 정말 유럽으로 가는구나!' 낯선 곳으로 가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오겠다는 기대감까지 마음속은 복잡하게 뒤얽렸다.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파리 드골공항. 이렇게 해서 24일간의 유럽 배낭여행이 시작되었다. 내가 본 나라들은 모두 자기만의 색깔과 매력이었다. 자유분방함이 느껴졌던 프랑스 파리, 신사의 나라라는 말이 어울리는 영국 런던, 신이 내린 완벽한 자연을 가진 스위스, 야경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체코 프라하... 하지만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로마요'라고 말할 수 있다. 건축학을 전공한다는 한 여행객은 배려한다고 했지만 내가 느낀 로마는 달랐다. 곳곳에 문화유산이 널려있어 도시전체가 박물관 같았다. 또한 독특한 색깔의 활기가 넘치고 낭만이 가득했다. 물론 내가 본 게 전부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외에 자기발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미래의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앞으로 대학시절의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 기회를 준 LG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원정 (중앙대 전자계산학과 4년)

우리의 인재들 세계의 인재로 키우는
LG 산학지원 프로그램

매년 전국에서 1천여명의 우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 각종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하며, 여름방학 동안 그룹 해외연수 및 개인 배낭여행도 보내드립니다.



◇ '해방 50주년' 문학계 회고와 전망

통일문학사 기술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다양
신진작가 중심의 개인경험 기술 많아...한국소설의 새로운 변화
한국문학 50년 논의, 풍성한 회고와 빈곤한 전망의 모양새

올 한해의 문학계는 '광복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방 후 50년간의 한국문학에 대한 총체적 조망으로 일관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학잡지 및 문학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특집 기획으로 다른 위주에는 일체의 압제에서 풀려나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문학을 생산했던 해방 후 50년의 문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문학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창조적 전망을 목적으로 한 '해방50년 한국문학' 기획은 새로운 반세기기를 여는 형식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통과의례와 같은 것이며, 식민지 시대로 국한하였던 기존 문학사의 한계를 지양·극복하기 위한 단초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주요 문학지 및 문학단체의 특집 또는 세미나 형식을 통해 요약·정리된 한국문학 50년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논의되었던 우리문학의 특징과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대한문화재단의 '해방 50주년 기념 문학 심포지엄'에서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①한국문학의 해외소개 ②해외의 한국문학, '북한의 문학' ①북한의 시 ②북한의 소설과 문예비평,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전망' 등과 같이 한국문학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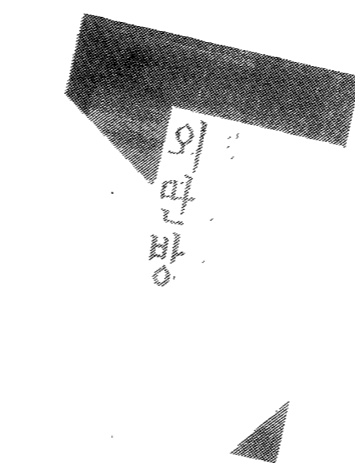
◇ 조정래의 '아리랑'은 한국근대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식민사관을 극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를 확대할 것을 재의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통일문학사 기술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 다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가시적 성과물(이것들의 원래 의도와 실제 내용이 부합하는가의 문제는 여기서 따질 계제가 못된다)이 적지않게 생산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하지만 통일문학에 대한 논의가 집중성을 잃고 파편화되거나 연구자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의 투사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세미나에서 주목되는 것

은 그동안 우리의 관심영역 밖에 있었던 해외동포문학을 한국문학의 관역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요즘 비평계 일각의 집단적 성향과 색채증화 경향에 대한 우려라 할 수 있다. 이회성, 아나톨리 김 등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우수한 작가나 작품을 범한국문학의 테두리에서 끌어안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될 정도이고, 문학의 직업적 아마추어리즘 경향의 확산은 충분히 경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개된 한국문학 50년 논의가 회고와 반성의 측면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는지 몰라도 전망의 관점에서 다소 빈곤하다는 인상을 남기 어렵다. 이것은 미래의 예언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설명해주며, 따라서 앞으로 한국문학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충실한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는 점을 알려준다.

90년대의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한국 문학 특히 소설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징후가 회고담 형식 또는 대하역사소설의 유행이라는 점은 많은 문학평론자들이 동의하는 바다. 박경리의 '토지'를 비롯하여 조정래의 '아리랑', 이원규의 '누가 이 땅에 사람이 없다' 하는가 등 대하소설이 대부분 한국근대사(식민지 시대)를 시간배경으로 하면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마땅하다. 이들 대하소설은



◇ 신경숙의 '외딴방'은 기존 문학에서 소홀히 여겼던 시간·상황을 다루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예가 된다.

과거사에 대한 일정한 비판과 새로운 해석에 바탕하고 있고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일본, 동남아, 연해주, 미국으로까지 넓히고 있어 거대 서사의 회고라는 시대적 분위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신경숙·윤대녕·공지영 등으로 대표되는 30대 작가들의 새로운 감각과 서사전력의 모색도 주의깊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이다. 과거 한국문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리얼리즘 소설이 개인사와 민족사를 유기적 연관에서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이들 신진 작가들의 작품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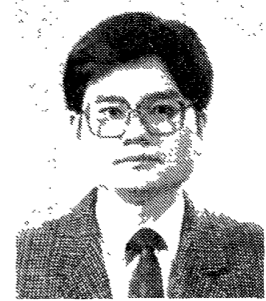
로 자신의 체험을 사적(私的)차원에서 기술한 것이어서 한국 소설의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고 있음을 암시한다. 올해 권위있는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수상후보자에 오른 작가들이 대부분 30대라는 것도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을 강력히 증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배작가들에 의해 별 의미가 없는 것 또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사건이나 상황을 취급하고 있는 이들 소설은 대체로 회고담 형식 또는 일종의 성장소설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사적 체험의 소설적 형식화가 다소 미흡하고 진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대로 1996년은 '문학의 해'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올해보다 다채로운 문학적 행사가 곳곳에서 전개되리라 예상된다. 모든 문학관계 종사자들은 이것이 일회적 전시행사로 끝나지 않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과거에 대한 회고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산적 창조적 전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믿는다. 문학적 일각에서조차 문학의 위기는 위협적인 발언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의 해'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줄 데없이 좋은 기회인 것이다.

장 영 우
(문과대 국문과 강사·문학평론가)

달 하나 전 경 예

탈냉전시대에 있어 적(敵)과 우(友)



1995년도는 광복 50년, 분단반세기, '통일원년'이라는 거창한 담화로 시작하여 '비자금 파동'이라는 추한 담화로 끝을 맺어가고 있다. 우리는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통일의 촉진요인으로 활용하여 지난 반세기동안 해결하지 못한 민족통일문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각오로 분단사를 통일사로 바꾸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통일문제를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국내정치적 비자금 파동에 휩싸여 남북관계의 아무런 진전없이 세모를 맞이하고 있다.

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통일도 멀지 않았으리라는 낙관적 기대는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주적(主敵)으로 부각시키면서 냉전적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이후 계속해서 미국을 한반도 분단의 '원흉'으로 보고 대미적대정책을 펴왔으나 제네바 북-미 합의 이후 미국과 관계개선을 서두르면서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관심을 보이는 한편, 남한과의 적대정책을 고수하는 이른바 친미접일배한(親美接日排韓)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남한정부는 한때 냉전적 흐름을 반영하여 남북문제 해결에 민족 우선론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표명하기도 했고, 1994년을 기해 현대의 안보개념을 수용하여 국방목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대상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1년도 못가서 한국정부는 "북한이 대남전략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1995-96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우리의 주적으로 삼았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으로 냉전시대의 양극체제와 적우(敵友)개념은 해체되었고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적 회색화여야 할 동족간에는 냉전적 적대意識이 상존하고 있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명분보다는 경제적 실리추구를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적우개념은 사라지고 '경제적 이익'이 탈냉전시대의 중심 담화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숙원관계였던 민족·국가들간의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궤를 걷는 동족이면서 민족통합은 커녕 이산가족의 상봉과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처해 있다.

탈냉전시대에 있어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의 공동 이익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대결적 관계로 보지 않고 동족으로서 통일을 이루어 민족의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할 동반자 관계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意識 또는 '악마적 인식'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체제가 우월한 남한당국이 '냉전의 관성'으로부터 시급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비자금 사건'이 남북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은 남북한 모두가 체제내부의 많은 모순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통일문제를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기화만사상(家和萬事成)의 평범한 진리가 남북문제를 푸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남북한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외부의 적을 강조하는 이른바 '적대적 의존관계'를 지속한 바 있고, 현재도 그러한 '관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한은 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체제내부의 모순을 타파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한사회의 부정부패 일소와 북한의 후계체제의 공고화 및 남북한 공히 민주화가 진전될 때 민족통일문제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 유 환 사회과학대 북한학과 교수

—히포크라테스와 허론— -쫓병

한의 심리 작용한 문화적 질병
운동·취미생활로 과불급된 기 발산이 치료법

구 병 수
(한대의 한의학과 교수)

환병은 흔히 환간에서 사용한 용어여서, 한의학적인 병명은 아니며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울화통이 터진다' 혹은 '예간장을 뚫는다', '화가 훌에비 등심하듯하다'라는 등 여러가지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와같이 환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러한 환병의 형태는 타민족에는 볼 수가 없고 유독 한민족에만 있는 질환으로,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정신의학적 증후군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이 환병의 주요 발생원인은 감정·처리가 잘 안해서 생기는데, 한의학

적으로 이야기하면 울증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현대 의학적인 용어로는 심인성 질환 또는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모든 질환을 말한다. 특히 한민족의 정서적인 구조는 자기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공유의 사고로 인하여 개인보다는 집단을 위주로 하였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 투쟁보다는 양보를 또는 부모에 대하여 절대복종을 미력으로 생각하였으며, 특히 한의 심리가 광범위하게 복합적으로 뿌리깊게 작용이 되어 갈등을 과생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내적인 충동, 욕구, 본능적인 욕망들이 억압이 되어 결국에는 환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심적에너지(physic energy)의

차원에서 보면, 인체내에 국한되어 있어 한쪽이 억압하거나 광장이 되면 다른마음의 상태에 이상이 나타나 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심적 에너지는 평형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에너지를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로 불수가 있는데 기의 과불급에 의하여 심신모두의 질병이 발생하게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나치면 환병이 발생하게 되는 데, 증상으로써는 우울, 불안, 불면, 소화장애, 두통, 신체통증 등 일반적인 신경정신적 증상 이외에 '부정적인 답답함, 열기, 입마름, 치밀어오름, 심계항진, 목가슴의 덩어리 등짐, 한숨, 뛰쳐나가고 싶은 등이 나타난다.

환병과 유사한 질환으로 목에 위치한 갑상선부위가 커지는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경년기후후군이라는 질환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나, 치료법은 전혀 다르니, 유념하여야 한다.

환병의 치료로 초기의 경우는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응집된 기를 발산하게되면 치료가 되고, 심하게 고착된 경우는 한약과 침 그리고, 부수적으로 심리치료를 통하여 자아(자기의 중심)가 건강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는데 자아강화를 한의학으로는 통행기능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토(土)의 기능으로 환병을 유발하는 모든 인자를 소화흡수하는 기능, 즉 통합기능이 강하면 인체의 모든 마음의 변화를 통솔할 수가 있게된다.

한의학은 예방의학을 중시하였는데 정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러한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마음의 중용(中用)과 항상(恒心)을 가져 지나친 희노애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습기롭게도 우리선조는 시어머니의 억압에 축적되는 스트레스를 도리개내려치는 강도, 부지정어의 길, 아낙내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물 또는 박을 물에 튀겨서 놓고 크게 소리내도록 두드리는 방법으로 억압을 발산하였고 또한, 상대에게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리는 매개체를 사용하였으니 지금의 우리보다도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태평양패션
LaVora
라보라

연말사는

렛세스 '95탄생기념 특가 20% 할인행사!

신세대 이너웨어 -

렛세스 '95탄생기념 특가 20% 할인행사!

감각은 200% 더하기
부담은 20% 빼기

이너웨어의 신감각을 선연한 신세대 이너웨어, 렛세스가 '95탄생기념으로 12월 1일부터 20% 할인행사를 실시합니다. 감각은 높이고, 부담은 낮추고— 젊은 감각에 잘 맞는 렛세스를 특별가격에! 이 겨울, 멋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女
LET'SES
나를 아는 화운데이션—

男
LET'SES
Let's be Xes

■ 행사기간: 1995년 12월 1일~14일 ■ 행사장소: 전국백화점 및 라보라 전문점 ■ 전문점을 모집합니다. ■ 본사 (02) 546-5121 ■ 부산지점 (051) 463-0853 ■ 대구지점 (053) 756-2354 ■ 대전지점 (042) 624-0199 ■ 광주지점 (062) 223-7759 ■ 수원지점 (031) 48-0433 ■ 전주지점 (0562) 75-0743 ■ 인천지점 (051) 53-0966 ■ 원주지점 (0371) 761-0212 ■ 인천송도점 (032) 434-4544

◆ 제28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유병문(불교4)군을 만나



유병문(불교4)

제28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유병문(불교4)·홍인구(아간영문3)조가 지난 23일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되었다. 이에 유병문 제28대 총학생회장을 만나 내년도 총학생회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에 진행했던 단과대와 총학생회 선거투표를 한다던데, 유권자들이 공약자료집을 많이 읽어보는 등 정책선거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총학생회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 것은 그동안 학생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불신 등 학생회 위상의 혼란 등 총체적 결핍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총학생회인정제에 대한 견해는, = 평가어후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잘 받아야 하지만 평가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단 교육환경개선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하고, 결선투표에서 끝나지 않도록 슬기롭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수위를 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8대 총학생회는 '역사창조·인간존엄'을 핵심 모토로 세웠는데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 생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대학의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인간의 존엄한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역사창조·인간존엄'이다. 바로 인간의 건강한 존엄을 복원하는 것이다. 상충화된 자본의 사회에서 대학의 공동체문화는 해체되었고 학생회는 애증과 사랑,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모순만을 보인다고 여겨졌다. 제28대 총학생회는 서로 인정하는 속에서 간부실명제, 간담회 사업, 강의실 인사등을 통해 학우들을 만나면서 열려있는 학생회를 만드는 것을 학생회 기본사업으로 정하고 중구예수제 등을 복원해 지역사회까지 '인간존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곽주영 기자)

5.18 관련자 처벌 투쟁지속
특별법안 제정방침...목적 일부 수정될듯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제2차 동맹휴업이 오는 12월 1일에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각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3일 상관관대에서 약3천명의 학생과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2차 총궐기에서 한총련(회장=정태홍·고대)한 대학생들이 지난 9월 29일, 30일 양일간 있었던 제1차 동맹휴업에 이어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2차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가두시위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4일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

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9월과는 상황이 달라져 동맹휴업의 목적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특별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며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 79년 12·12사태와 80년 5·17쿠데타에 연루된 인사들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회장=인진우·국고4)는 "지난 9월 29일, 30일에 있었던 5.18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제1차 동맹휴업과 수차례의 국민대회의 결실로 지난 24일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제2차 동맹휴업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1차 동맹휴업때보다도 더 많은 학우들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생회관 공사 실시

언론사와 각 동아리가 모여있는 학생회관의 공사가 다음달 중순경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부공사와 난방시설, LAN의 구성등이 이루어질 이번 공사에 대해 구매과(과장=신봉근)의 한 관계자는 "지금 현재(24일) 입찰사 선정을 위한 조사단계에 있다"며 "입찰이 결정되면 곧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향관 반찬 자율배식 실시

예산 문제 없으면 동국관까지 확대

다향관 학생식당이 반찬 자율배식을 지난 22일부터 실행하여 학생들의 반찬부족문제 해결에 나섰다.

학생들에게 부족한 반찬을 자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시한 무료 반찬제공은 긍정적인 반응과 예산의 문제가 없으면 동국관 학생식당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환·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반찬을 더 먹고 싶어도 식당 구조상 형편이 안되어 반찬 자율배식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에 10만원 정도 들여 행하는

구내서점 15% 할인 판매

본교 구내서점에서 할인판매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

구내서점인 만해서점(다향관 지하)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여와 생활협동조합 설립기념으로 교재를 제외한 여학(사전포함), 단행본, 수필서, 컴퓨터, 잡지에 관련된 서적을 15%할인판매한다.

기원학사 개보수안 확정

본교 기원사 기원학사에 대한 개·보수안이 마련됐다.

지난 11월초 기원학사를 방문한 이문보, 김구석(이상 건축공학)교수와 안전진단에 따라 이번 겨울방학에 편리차(처장=김종욱)에 의해 건물보수가 실시되고 그외 함께 △장문보수 △삼당보수 △세탁실개수 △물탱크교체 △소방 및 전기공사도 병행된다.

또 96년도 예산안에 따라 여류관 학동에 △난방공사 △소음방수공사 △집기(침상및 책상)교체 △화장실, 주방, 샤워실보수가 실시될 전망이다.

교수 초빙 원서 접수마감

'96학년도 제1학기 신규교수초빙 원서접수가 지난 20일로 모두 마감돼 오는 12월1일까지 학과심사에 들어간다.

원서접수 마감결과 서울캠퍼스 29개전공 34개분야에 2백77명, 경주캠퍼스 12개전공 37개분야에 89명으로 총41개전공 71개분야에 3백66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기 신규교수임용에는 총 71명의 교수가 초빙되며 지난 23일 부터 오는1월까지 9월간의 학과심사를 거친다.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제12대 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김태호(철학 석사12학기)·조광원(사회학 석사12학기)조가 임후보로 29·30 양일간 투표가 실시된다.

'원우들이 주된되는 총학생회 건설'과 '전진하는 총학생회 건설'을 기치로 내건 김·조조는 투표일까지 유세기간을 갖는다.

학전무대

차리리 대통령을

○...논가라고 까공하기. 민자당이 당명을 바꾼다고. 노태우의 부정축재 등 정경유착의 악습을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기위해서라는데. 아마도 민자당이라는 이름을 더이상 쓰기에 스스로 평가는커녕 더 이상 있어서안듯. YS의 대선자금의혹을 덮어버리고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속보이는 술수인데. 이에 본 회원단체가 한마디 "뒷간에서 파리 쫓기."

어둠의 자식들(?)

○...유비의 부락을 두번 사 양한 재갈광명의 '삼고초려'는 익히 알고 있을터. 현재 동악도에 재갈광명 이상의 인물이 있는 기관이 존재한다고. 6개월동안 불이 안들어오는 학회실에 광명쯤 내려달라는 식물자원학과와 요청을 관재과 전기실은 번번히 사양(?)한다는데. 어두운 밤만 되면 촛불잔치를 벌이던 한 학우. 이제는 지쳤는지 "우리는 별 수 없는 어둠의 자식"이라며 눈물을 뚝뚝.

반찬 파동(?)

○...다향관 식당에서 반찬 자율 배식을 한다는데... "미용품 드세요. 단, 남기지는 마세요"라는 문구 아래 김치를 담은 듯한 반찬통이 있던 한데 오후 2시25분 현재 김치는 다 데우고 약간의 국물과 찌꺼기 뿐.

정직해서 슬퍼요

○...정말정말 정직한 자판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정직해서 모두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바로 학생회관 1층에 자리한 커피자판기인데요. 글썽 글썽하며 누르니 정말 울무차단 주사야요. 커피를 눌러두 마친가지구요. 버튼위에 써있는 차이를 그대로 그 차판 주대라니까요. 컵은 안주구~.

◆ 제28대 총대의원회 의장 당선자

천성국(컴공4)군을 만나



천성국(컴공4)

'부활하는 역사'를 기치로 내걸고 제28대 총대의원회에 출마한 천성국(컴공4), 최이선(통계3)조는 89%의 투표율에 1백4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총대의원 당선자 천성국을 만나 당선소감과 앞으로 사업계획을 들어보았다.

출발통기와 당선소감은, = 이번학기 총대 조직국장으로서 사무국장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고 그간 보여줬던 총대의원회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대의원분들께 감사한다. *

가를 한다면 모든 사업은 학생회와 연대하여 함께 해나갔어야 할데도 불구하고 감사, 선거관리 등 고유업무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싶다.

28대 총대의원회의 성과 사업 방향은 무엇인가.

= 우리가 기치로 내건 '부활하는 역사'의 의미를 광범위 학생회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다시 찾는 것이다. 대중적으로서 일반 학우속에 자리잡는 것이다.

이월사업을 효율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 일단 총과적 관점을 깨뜨려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이전의 학생회와 신임학생회 임원간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를 강제하고 싶다. 또한 내년 사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12월 중순부터 예비조직가담을 실시할 것이고 예산집행부분도 같이 논의할 것이다.

확부제가 점차 시행되는 상황에서 학생회체계고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짧은 시간에 대안이 나올수는 없고 학우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소용없다. 방중 학부제 소위원회등을 조직, 조금씩 준비해나갈 것이다. (김소영 기자)

학복위 겨울특강
영어·컴퓨터 등 12월 18일부터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공4) 이하 학복위가 추진하는 겨울특강이 오는 12월18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실시 예정이다.

컴퓨터 특강접수는 오는 12월18일까지 학복위측에서 받고 있으며 영어 특강은 오는 12월1일부터 23일까지 구내서점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다.

영어특강 교재는 SYSTEM TOEIC, 암바사TOEIC, ELITE TOEIC, 중앙교육 TOEIC, 아카데미 토크, 고려원 VOCA+ 영어순해, 일본어뱅크초급, 시사종합토를, 넥스스독해공략으로 수강료는 1만5천에서 2만원 사이다. KLC는 2학기의 동일하게 진행된다. 컴퓨터 특강에는 매킨토시 컴퓨터가 전 기종으로 사용돼 다양한 그래픽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스디자인 이론, 2D Drawing, 2D Painting, 2D Animation, 3D Animation, 전자출판(DTP)

96년 학생수첩이 오는 12월10일 1차로 배포될 예정이다.

올해 학생수첩이 학기초인 4~5월에 배포된 것에 비해 일찍 배포되는 것은 낮은 제작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총 1만부가 제작되는 학생수첩은 중앙 전에 학생수첩배를 납부한 1, 2, 3학년들에게 1차로 7천부를, 나머지 3천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배포하게 된다.

언어로! 세계로!

청문외국어학원 종로2가 종로서적뒤 738-5151

최신 영어 특강 영어·중국어·프랑스·독어

EFL 회화코스 소급 중급 고급의 3단계, 최신판 프로그램, 12명의 교수진, 전담 Native Speaker

영어회화 한민 미인회화, Side by Side Spectrum, American Streamline, Free talking

독어/영문/문법/대역원 기초영문법 기초영식, 실력기초 영어순해, 인문어학기초

중국어 회화/청취/독해 TIME GRE (GMAT)

토플/토익 및 청취 아카데미모름 토플종합반, TOEFL, L.C TOEIC 종합반, TOEIC L.C-APKN 청취, SCREEN 영어

주말특별강좌 아카데미모름 토익종합반 (GMAT), 기초영문법, 표준인문어학, 인문어회화(초급) 영어능력시험대비, 중국어 프랑수어 독일어

신중심프랑스어 독어 구문·회화

CHUNG MOON

일반휴학원접수 공고

'96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신청기간: '96.3.4(월)~3.6(수)
2. 신청자격: '95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가정형편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서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소정양식)
6. 유의사항
 - 가.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 제적됨.

1995.11

교 무 처 장

복학원접수 공고

'96학년도 제1학기 복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함.

아 래

1. 접수기간: '96.2.14(수)~2.16(금)
2.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
3. 구비서류
 - 가. 일반복학자: 복학원서 1부
 - 나. 군복학자
 - 1) 가전역자
 - 가) 복학원서 1부
 - 나)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 1부
 - 2) 전역예정자('96.3.31이내 전역예정자)
 - 가) 복학원서 1부
 - 나) 전역예정자 각서1부

1995.11

교 무 처 장

신문사와 학복위에서 학보봉투 무료 배부합니다

원불전 봉안불상 작품기증 안내

귀의 삼보하우고 동국대학교는 불교정신을 전학이념으로 설립된 종합대학교로서 다가오는 2006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각종 대학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 불교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만불봉안불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불봉안불상'을 빛내기 위하여 1996년 개관 예정인 본 대학교 학술문화관 원불전에 봉안할 불상 모형 작품을 불교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은 작가를 대상으로 기증받고자 합니다. 기증된 작품은 소정의 실사를 거쳐 원불전에 봉안할 예정이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상의 종류: 여래상, 보살상
2. 크기: 높이 15cm 이상 20cm 이하
3. 수량: 1점 이상
4. 접수기간:
 - 가. 서류 및 전화호출: '95.12.15(금)까지
 - 나. 작품 및 사진 접수: '95.1.10(수)까지
5. 재료: 청동, 나무, 석고, 우레탄, 도자기, 기타 주형제작이 가능한 재료
6. 형태: 좌상형 입상, 수인 등 자유형식
7. 제출처: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기념사업본부(☎280-3791-5)
8. 유의사항: 작품 뒷면에 작가 친필 서명 필히 명기 요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개교100주년 기념사업본부 연락하시거나 바랍니다.

1995.11

동국대학교 총장 송 석 구 학장

좌선수련대회 안내

동국좌선회에서는 산사생활 체험과 참선정진수행을 실시하오니 동국가족여러분의 적극 동참바랍니다.

1. 일시: 1995년 12월1일(금)~2일(토)(1박2일)
2. 장소: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불암사
3. 참석대상: 교직원(회비없음)
4. 집결일시: 12월1일(금)7시 정각원 앞
5. 준비물: 1) 좌선복(좌선하기에 알맞은 복장) 2) 세면도구
6. 문의전화: 정각원 사무실(안충철 박사: TEL. 3016)

정 각 원 장

